

경기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제16회 경기도연합회장기 동북부권 게이트볼 대회가 4월4일 포천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다.

경기도 게이트볼 연합회는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한마당 큰잔치의 일환으로 노인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포천시, 가평군, 남양주시, 구리시 등 4개 시·군 클럽대항전으로 치러지며 82개팀 541명이 토너먼트전으로 진행됐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평소 갖고 있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후회 없는 결과를 얻길 바라며 항상 쾌아플레이 정신으로 승부를 떠나 동

북부권 게이트볼 동호회원 모두가 하나 되는 대화합의 잔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식목일의 날' 나무심기 행사

포천시는 62회 식목일을 맞아 우리 숲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고 시민과 함께하는 식목일이 되기 위해 4월4일 영북면 야미리 일원 야산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해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 남궁준 산림조합장, 유관단체 관계자와 공직자 등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2ha(6,000평) 산림에 자작나무 2년생 6,000여 그루를 심었다.

이날 나무심기를 하는 영북면 야미리 야산에는 은사시나무와 활엽수 등이 자라던 천연림 지역으로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자작나무로 수종을 갱신했다고 시 산림

관계자가 밝혔다. 황영철 포천시 부시장은 "아름다운 숲과 녹지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오늘 우리가 심는 나무가 모태가 되어 미래에 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심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나무심기 행사를 비롯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산림가꾸기 사업, 학교숲조성사업, 전시의 공익화사업 등 산림정책에 더욱 매진하여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포천시로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목회단상

가상이 허망이 아니다

어떤 부자가 파란 얼룩말을 발견한 사람에게 백만불의 포상을 하겠다고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본 독일 사람은 이 광고를 보자마자 도서관으로 달려갔다. 연구과(研究派)다. 영국 사람은 아프리카의 지도를 구입했다. 행동파(行動派)다. 프랑스 사람은 당나라에 파란 페인트 칠을 했다. 기교파(技巧派)다. 일본 사람은 파란 인조털을 만들어다가 한 개씩 한 개씩 얼룩말에 이식(移植)을 시작했다. 잔재주파다. 험악하고 단결하면 세계의 가장 무서운 가능성의 민족이다. 남의 말을 팔까지 들을 줄 알고 남의 의견도 존중하고 남의 입장에 서 보고 이해해 보려는 노력도 하는 습성을 가



김 상 식
내촌감리교회 목사

리도 좋은 두뇌와 가능성을 가지고 손발 걷고 나서서 참여하고 의지를 펼칠 때라고 생각한다. 험악하고 단결하면 세계의 가장 무서운 가능성의 민족이다. 남의 말을 팔까지 들을 줄 알고 남의 의견도 존중하고 남의 입장에 서 보고 이해해 보려는 노력도 하는 습성을 가리면 협조와 단결은 저절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요즘 FTA도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가상의 허망이 아니라 현실의 성공으로 이룩될 것이다.

성서는 이렇게 교훈해 주신다. 전도서 4장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겠거니와 삼사람이면 능히 당하겠거니와"고 일러 주신다. 문의) 031-532-2489

자유기고

FTA협상·농업 본질적 대책 세워야



하 재 인
포천농협이사

한미FTA 협상이 완료되어 한국경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한미FTA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경제를 개방함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전반적인 대세로 인정되면서도, 농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농업의 구조조정과 생산성 제고로 농업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떤 품목을 육성하고 어떤 품목을 축소시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 실패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보완하고, 구조조정과 피해보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원 배분을 조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한미FTA 협상은 농업인의 희생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좀 더 심각하다. 농축산물 개방은 농업과 농민들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로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 가치 등 미래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농업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농업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업전공 확충'과 '농업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농업'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농업을 보장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냉철한 분석에 바탕을 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정책 수립, 투융자계획과 재정조달 방안이 반드시 법제화되어 본질적인 보완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농축산물 수입에 뒤따른 피해는 합구한 체 협상체결 실적에 눈이 멀어 농업의 위기를 은폐한다면 농업부문의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 농업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한국 농업의 재설계 하는데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국 농업의 파국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별기고 통일 후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① 머리말

통일대비 북한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고민 필요



서 의 석
대성저축은행6년대표이사

본지는 외세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남북한의 통일을 염원하는 뜻에 따라 포천시 신음중 출신으로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을 역임하고 부이사관으로 정년퇴임하여 정부로부터 홍주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재하기로 한다. 서 대표이사는 행정학 박사로서 서울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주)

우리 민족에게 있어 중요한 과업의 하나인 통일이 언제 실현될 것인가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독일 통일과 사회주의 체제 변화에 고무된 많은 사람들은 통일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통일 비용 등의 경제 문제를 이유로 통일을 달가워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통일은 민족 최대의 당위적 과제로서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일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만 한다. 통일은 단순히 '더하기'의 산술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준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통일은 우리의 삶에 고통의 무게를 더하고 사회를 파괴시킬 따름이다. 그나마 최근 각 분야에 통일에 대비한 각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이라 할

것이다.

통일은 첫째로 평화적인 한반도 주변 정세, 둘째로 북한의 개방·변혁, 셋째로 남한의 통일 능력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지만 현재는 어느 조건도 충족하지 않은 상태이며 한반도 주변은 여전히 냉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통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국내외 상황을 통일에 유리하게 변화시키는 데 주력하며 차분히 이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의 부동산 제도는 조화점을 찾기 어려운 정도의 근원적 차이점이 있으며 북한의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의 도를 전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이 가능하면 적극 추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북한 지역의 공공용지의 확보와 효과적인 토지 이용 및 토지 투기 방지 대책으로서 북한 지역의 토지를 상당량 국·공유화시킴으로써 토지를 이용권 중심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한다.

이는 토지 이용의 극대화와 함께 토지 소유의 편중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업의 국제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민족 통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면 통일은 먼 장래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제 눈앞에 닥쳐올 현실이다. 우리는 통일에 대비하여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하겠다.

이 책에서는 통일에서 파생되는 북한 지역의 토지 문제 해결

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상당 부분의 토지가 공공적으로 사유화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경제 재건과 북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유화여야 한다.

둘째, 사유화는 장기간에 걸쳐 분야별로 선별적으로 시행되되, 통일 한국의 미래를 지향하는 거시적 산업정책에 따라야 한다.

셋째, 사유화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원활한 토지 관련 행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 등의 연구와 시행을 전담할 전담기구의 구성이 시급하다. 이때 그 전담기구의 주요 시행기구로 남한의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의 도를 전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이 가능하면 적극 추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북한 지역의 공공용지의 확보와 효과적인 토지 이용 및 토지 투기 방지 대책으로서 북한 지역의 토지를 상당량 국·공유화시킴으로써 토지를 이용권 중심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한다.

이제는 토지 이용의 극대화와 함께 토지 소유의 편중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업의 국제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민족 통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면 통일은 먼 장래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제 눈앞에 닥쳐올 현실이다. 우리는 통일에 대비하여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하겠다.



아름다운 생활 ①

봄철 피부관리-각질제거와 충분한 보습

아름다운 생활은 누구나 원하는 일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분주함에 쫓겨 아름다운 생활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기 쉽지는 않다. 이러한 때에 송명선 뷰티컨설턴트로부터 아름다운 생활을 위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본지가 연재를 마련한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편집자주)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바람,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피부에게는 반갑지 않은 계절입니다. 건조한 날씨, 바람, 꽃, 황사, 자외선 등 주변에 온갖 피부의 적이 가득합니다. 겨울철 한껏 움츠린 피부가 봄이 되면 팽팽과 피지선이 활동을 시작하고 피부에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홀한 피부관리를 위해 여드름, 기미, 주근깨, 노화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봄철 환경으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첫째, 피부결정물 트러블을 예방해야 합니다. 꼼꼼하지 않은 클렌징은 모세혈관의 수축으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클렌징 로션, 크림, 폼으로 항상 이중세안을 하여 미미 리 봄철 트러블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둘째, 각질 제거입니다. 겨울 내 피부에 쌓여버린 각질들은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고 화장을 더럽혀 보이게 합니다. 일 주일에 2~3회 각질제거로 지속적인 피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충분한 보습으로 피부의 건조함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유분이 많은 제품보다는 수분 에센스, 수분크림으로 피부건조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차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강한 자외선과 잦은 야외활동은 색소 침착과 피부노화를 유발 시킵니다. 피부타입에 맞는 선크림을 선택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떤 환경적 여건에서도 밝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화이트닝 케어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2007년 봄 맑은 피부 관리를 하여 더욱 자신 있는 피부로 나서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뷰티컨설턴트 송명선 010-9757-7648



꽃배달 서비스

성리플라워

자향

www.wellbeingcha.com
031-543-1883

전국.해외꽃배달서비스 080-543-1889

wellbeingcha.com

♣ 위치는 소흘읍
이동교리281-14
부인타사거리에서
송우리쪽
130m
우측대로변
풍산그라비아옆
♣ http://www.sunghaflower.co.kr

011-758-9088

011-9750-1883

♣ 운남보이차 진품
천연무공해식품
무량산다예종
원산지 제품 도소매
"자향다호회" 회원우대
연중무휴시음및
다도시연회
♣ http://www.wellbeingcha.com

운남보이차